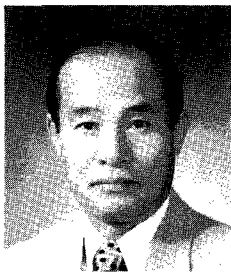


가금위생 해외뉴스

오경록 ◀코너



오 경 록
남덕 싸니테크

□ 산란계 농장에서 구서대책

살모넬라 엔트리디스(S)는 난계대 전염에 의하여 수직전파도 가능하므로 방역대책으로 종계군의 청정화를 기본으로 하여 수입추의 검역강화, 원종계와 종계장 대책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산란계 농장의 대책으로서는 청소, 소독을 중점으로 한 평소의 위생관리와 함께 쥐 유래의 SE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므로 기사또 대학에서의 산란계 농장에서 5년이상을 구서대책을 실시하여 쥐의 생태를 이용한 구제방법을 발견하였다. 우선 구서대책의 중점으로는 다음 5가지를 들 수 있다.

- 1) 현재 계사내에서 살고 있는 쥐를 철저히 구서한다.
- 2) 다음으로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쥐에 대해서는 계사 침입시점에서 증가하기전에 처분한다.
- 3) 구서에 성공한 계사에서도 닭이 있는 한(쥐의 사료와 물) 쥐는 계속 침입하므로 7~10일 간격으로 새로운 미끼먹이를 계속 놓는 등 구서작업이 필요하다.
- 4) 놓아둔 미끼 먹이가 2~3일 동안에 없어지거나 죽은 쥐가 보이면 계사내에 쥐가 살고 있는 것으로 본다.
- 5) 그러나 미끼먹이가 없어지지 않거나 죽은 쥐가 보이지 않으면 계사내에 쥐가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미끼 먹이를 지정 장소에 계속 놓아 계사내에 쥐가 살수 있는 기회를 줄인다. 이를 위해서는 쥐가 보이는 장소, 좋아하는 장소, 통로 등에 미끼먹이 설치 장소를 결정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충하며 구서작업이 성공후에도 미끼먹이 설치의 계속하고 광범위하게 미치는 평면대책을 실시한다.(NK. '97. 10)

□ 가금육의 청정화를 강화

미국은 분(똥)에 의한 가금오염에 관한 규칙을 강화하였다. 분에 오염된 가금도체는 냉각수조에 들어갈 수 없는 규칙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함께 새로운 HACCP(위해요인 중점관리 기준)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새로운 규칙을 시행하기 위해서

는 식품안전검사국의 검사관은 도계장의 내장적출 라인에서 검사하지만 최종 단계의 수세와 냉각에 들어가기전에 표본으로 도체를 검사한다. 육안으로 적어도 분에 의한 오염이 관찰되면 도계과정의 관리가 부적합하다고 보고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분에 오염된 도체가 한 마리도 없이 완전하게 없이 완전하게 될 수 있게 유도한다. 이러한 새로운 규칙에 대해서 미국 대부분의 육계회사를 대표하는 미국육계협회는 육계회사에서는 계분오염이 전혀 안된 제품을 출하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더불어 육계협회에서는 개정규칙을 수용하기 위하여 농무성과 협조하여 필요한 규칙은 어떠한 것이라도 받아드릴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NK. '97. 10)

□ 세계의 가금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제4회 세계 가금인플루엔자 심포지움이 지난 5월에 미국 아틀란타주의 조지아 대학에서 개최되었다. 심포지움 내용에 대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세계의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상황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또는 항체)는 세계의 여러나라(멕시코, 호주, 파키스탄, 미국, 캐나다, 영국, 이태리, 한국, 중국, 싱가포르 등)에서 검출되고 있다. 그 대부분은 비(저) 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이지만 멕시코, 파키스탄 등에서는 강한 병원성의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바이러스 전파의 한가지 요인은 철새에 의한 것으로 HA(혈구응집) 유전자의 분석에 따라 미국에서는 물새로부터 계군에 전파가 인정되었다. 또한 개방화 되고 있는 현재 국경이 인접한 나라에서는 근로자의 이동과 애

완용 조류의 수출입에 의한 전파도 무시할 수 없다. 사실 영국, 화란과 싱가포르에서 분리된 6주의 혈청형 H7의 바이러스는 HA개열 부위의 아미노산 배열의 비교에 따라 공통의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명하였다. 중국에서는 1994년에 비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H9N3)기 닭에서 처음으로 분리되었다.

2) 강한 병원성(감독) 가금인플루엔자의 발생 상황 : 멕시코에서는 1993년 후반부터 1994년 초까지 호흡기 증상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코라이자, IB(전염성 기관지염) 등의 원인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1994년 5월에 3개주의 육계에서 저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분리되고 얼마후 16개주로 확산되었다. 1995년 1월에 강한 병원성의 가금인플루엔자 2개주에서 분리됨에 따라 특별대책팀이 구성되고 검역의 강화, 이동제한 사독백신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97년 5월 현재 5개주 14개 농장에 가금인플루엔자 항체 양성계군이 인정되고 있다.

그밖에 파키스탄에서는 혈청응집 H7N3에 의한 강한 병원성의 가금인플루엔자가 1994년 12월부터 발생하였다. 백신의 사용, 검역의 강화 등에 따라 1995년 8월 이후에는 새로운 발생은 없다. 최초 발생 지역은 중국, 러시아부터 철새의 이동지역이지만 주변국에서 발생은 보고되지 않고 있어 진입경로는 불확실하다. 호주에서도 혈청형 H7N3에 의한 높은 병원성의 가금인플루엔자가 1992년과 1994년에 2개 농장에서 발생하였다. 언제라도 임상증상에 의한 최초 발생 농장의 감염계군 전체를 도태하였다. 2개 농장 모두 들새가 서식하는 호수의 물을 처리하지 않고 사용한 것이 감염경로의 한가지일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NK. '97. 10)